

# 원 간섭기 신진 사대부의 실체 규명해

《고려 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민현구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최근 고혜령 박사의 《고려 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일조각)이 출간됐다. 이 책은 분명한 문제 의식과 철저한 논증을 바탕으로 오욕과 격동의 시대인 원 간섭기를 넓은 시야에서 재조명해 발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을 만한 업적이다.

## 신진 사대부와 원 사대부의 교유관계 밝혀

이 책은 원 간섭기에 성리학의 수용과 관련해 활동한 사대부층의 성장과정과 사상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이 시기 권문세족과 더불어 사회주도세력을 이뤘던 신진 사대부의 실체와 성격을 밝혔다. 먼저 사대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들은 관인신분(官人身分)이지만, 유학을 기본으로 하고 예의를 지키는 독서인이며, 지방 향리의 후예이거나 신진 관인 가문 출신자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성격짓고, 이같은 사대부는 무신정권 이후 원 간섭기를 거쳐 공민왕 이후의 고려말까지 세 시기로 나뉘어 변환(變換)·성장한다고 봤다.

다음으로 성리학의 수용은 제2기의 사대부, 곧 원 간섭기의 신진 사대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 시기의 특수한 정황 속에서 원 제과(制科)에 급제하는 것이 신진 사대부의 출세와 성장에 첩경이 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성리학 수용에 큰 구실을 한 16명의 사대부와 원 제과 급제자 11명(그 가운데 6명은 증복됨)을 추적했으며, 뒤이어 이들 사대부의 사상을 살펴 《주역》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효의 실천을 중시하며 불교 비판의 신호를 올림으로써 성리학에 접근했다.

이 책의 또 다른 한 축은 이 시기의 대표적 사대부인 이 곡(李穀)에 대한 접근과 연구다. 미미



고혜령 지음  
일조각/A5신/312면/16,000원

한 지방 향리의 자제인 이 곡이 과거에 합격해 관인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원 제과를 통해 원에 사환(仕宦)함으로써 두 나라를 넘나들며 크게 현달하는 사정을 추적했는데, 여기에서 그를 원 간섭기에 대두하는 신진 사대부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해 그의 진출과 활동, 그리고 사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원 사대부와와의 상세한 교유 내용을 포함하는 이같은 이 곡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이어서 같은 시대의 최 해(崔海)와 안 축(安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그 활동과 사상을 분석·검토하는 것으로 이 책을 마무리짓고 있다.

## 고려 후기 사대부의 개념 재정립해

이 책의 두드러진 성과와 특징을 든다면, 첫째, 근래 쟁점으로 떠오른 고려 후기 사대부의 개념과 역사적 위치를 재정립했다는 점이다. 사대부란 용어에 대한 이견이 제시돼 사류(士類)·사족(士族)·유신(儒臣) 등이 대체 용어로 제시되는가 하면, 무신정권기부터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20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존립하는 사대부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던 바, 이

책에서는 충실한 학설사적 검토와 《고려사》의 수많은 용례분석을 통해 유교적 교양과 윤리규범을 갖춘 관인으로서 사대부의 개념을 확인했고, 사대부를 몇 시기로 나뉘어 이해함으로써 연속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이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사대부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둘째로 고려와 원과의 문화적 교섭을 적극적으로·근원적으로 추구해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원 제과 합격자 및 성리학 수용과 관련해 이 책에서는 원의 제도와 학술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특히 이 곡이 원 사대부와 교유한 것을 밝히기 위해 그에 해당되는 원의 학자 문인 20여명을 본격적으로 천착했다. 이처럼 고려측의 자료에서 벗어나 바깥쪽의 자료와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섭렵하는 적극적 연구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원 간섭기에 대한 우리의 지견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됐다.

셋째로 원 간섭기를 역사의 발전이 담긴 살아 있는 시기로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원 간섭기의 고려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드물게 외세의 강력한 지배와 간섭 아래 놓인 모순과 왜곡의 시기였다. 때문에 이 시기는 거의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시 활약한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가 당면한 '종속체제'를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고려왕조의 독립성과 문화적 자립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실을 담고 있으며, 그들의 바로 다음 단계에서 고려말 사대부가 조선 건국의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어두운 원 간섭기를 한국사의 발전과정 속에서 시민권을 지니는 떳떳한 시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 ‘꿈’이라는 열쇠말로 읽어낸 낭만주의의 역사

《낭만적 영혼과 꿈》

김성택 | 경북대 불문과 교수



알베르 베갱 지음/이상해 옮김  
문학동네/A5신/664면/20,000원

마침내 알베르 베갱의 《낭만적 영혼과 꿈》(문학동네)이 번역됐다. 제네바 학파의 선도적 비평가로 이미 잘 알려진 베갱의 대표작인 이 저서가 무려 60여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말로 옮겨진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이제라도 충실하게 번역된 것은 옮긴이의 공이다.

이 책은 시대적으로는 낭만주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낭만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를 거쳐 그 영향이 남아 있던 초현실주의까지 다루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를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선 문예사조를 소개하는 연구서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낭만주의를 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은 새로운 문학사로 볼 수 있다. 실증적인 문학사에 식상한 독자라면 꼭 읽어볼 만한 낭만주의의 지형도다. 이 지형도에서 독자들은 낭만적 영혼의 모험을 좇다보면 위태로운 벼랑에도 서고 풍요로운 구릉 지대에서 희귀한 과일도 맛보게 될 것이다.

### 낭만적 영혼을 일깨우는 주술서

그러나 이 책은 옮긴이의 표현에 따르면 “낭만적 영혼을 일깨우는 주술서”기도 하다. 편협한 이성의 압제에 의해 금기시된 꿈속으로의 모험은 우리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낭만주의 시인과 사상가들이 꿈을 통해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 자신과 만물의 본성을 깊이 이해했듯, 독자들은 이 정신적 모험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 특정 사조로서 ‘낭만주의’는 낭만적 영혼이 지나가다 들른 숙소의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정신분석학과 같은 환원적 방법이 아니라 개별적인 독창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시

인의 꿈을 추적하는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있다. 1부는 18세기 합리주의자들에게서 출발한 꿈에 대한 탐색이 19세기 낭만주의 사상가들에게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단계적으로 그려낸다. 계몽의 빛으로 가득했던 낮에서 낭만적 밤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꿈의 복권을 위한 것이었다. 꿈은 점차 순수 심리학의 차원에서 형이상학의 차원으로 옮겨가 해석됐고 그런 의식화 과정은 결국 인간에 대한 근원적이지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2부는 시의 영역을 다룬다. 전기 낭만주의에서 초현실주의까지, 독일의 시인과 소설가에서 프랑스의 작가들까지 섭렵하면서 낭만적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짚어가고 있다. 독일의 밤하늘에 떠오른 윌헬름, 장-파울, 노발리스, 티크, 아르님, 브렌타노, 호프만 등등. 프랑스의 하늘엔 세 낭쿠르, 노디에, 게랭, 네르발, 위고, 보들레르, 랭보, 엘뤼아르 등등. 이 별들은 하나 하나 자신의 고유한 색과 크기로 반짝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커다란 성좌를 이룬다. 결코 환원될 수 없는 각 개인의 고유한 내적 경험에도 이 낭만주의자들은 모두 존재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밤의 개척자라는 점에서 한 가족을 이룬다.

### 내면탐구의 감동적인 역사 보여줘

“자신의 뿌리가 내부의 어둠 속에 있다는 명료한 의식”을 갖고 위험과 희망이 함께 있는 무한한 꿈의 세계로 순례를 떠난 저 통찰력 있는 탐험가들은 사이렌 요정들의 노래 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뜻대에 묶는 오디세우스처럼 현실 세계로 되돌아올 의지를 견고하게 다져야만 했다. 도취에 머물든 희귀한 보물을 갖고 돌아오든 글쓰기는 이런 의지의 결과다. 무한한 황홀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을 해체하려는 욕구는 신성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이다. 의지의 밧줄을 풀어버리고 꿈 속으로 사라진 탐험가에 대해서는 난파에 대한 소문만 들려올 뿐이다. 그러나 글쓰기는 돌아온 오디세우스의 몫이다. 이 글쓰기에 의해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삶을 알게 된다. 근원적인 통일성을 지닌 삶을 감지하게 되고 영원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 그래서 “밤의 꿈은 시가 자양을 취하는 근원이다.”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형식이 아니라 여전히 내용이다. 내용의 변화는 느리고 미미하지만 그 결실은 수많은 낭만적 영혼의 모험을 통한 것이고, 끔찍한 시련 끝에 얻은 아주 작은 이슬방울과 같은 결실로도 우리의 삶은 금방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기술 중심의 문명이 극대화돼 독창성이 형식의 변화나 창출쯤으로 이해되는 시대에 오래 전부터 인간의 내면 탐구와 진정성 회복이 진행돼 왔으며 그런 탐험의 결실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동을 금치 못한다.●